東亞日報
朝刊 本紙朝夕合八面
印刷人 宋鎭禹 發行人 梁源模 編輯人 宋鎭禹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 光化門 代表番號 一九〇〇

山關事件과 現下情勢

根本的解決條件으로 中立地設定提案

關係列國等의 意思도 尊重?!

日本側, 何에게 提示

【東京六日發電通】政府의 山海關事件 根本的解決條件으로는
一、今次事件의 原因은 中國의 失地回復熱에 基因할뿐아니라 南京, 廣東及張學良 者間의 內政的混亂이 此에 轉化한것은 明白하야 中國의 此野心並內政不統一이 繼續하는 限今後로도 山海關國境의 安全은 期待키難하다
一、따라서 山海關의 永久的安全을 保障하기爲하야 山海關의 日中滿三者間의 武力的衝突의 危險을 絶對的으로 除去하기로 同地一帶에 對하야 中立地帶를 設置하는것이 至當하다
고 思惟한다는 見解를 表示하고잇다 따라 今後事件解決交涉의 際는 中立地帶의 設定을 提案하리라 觀測되는바 本件에 關하야는 一九〇二年의 條約에 基하야 關係列國의 意向도 尊重치안흐면아니될으로 如何한形式으로하는지 目下明白치안타
【제네바五日發電通】中國代表顔惠慶은 山海關事件에 對하야 日本은 左와如한 四個條의 要求를 提出하는 解決案을 何样國에게 提示하얏다고 聯盟事務局에 報告한바 右는 前時聯盟關係側에 通達하얏다
一、山海關에서 中國軍을 撤退시킬것
二、山海關을 滿中國境緩衝地帶로할事
三、奉山鐵路를 山海關外지 延長하고 北寧鐵道에서 離脫시킬事
四、以上의 條件이 達成하기까지 日軍은 撤退치안는다

張軍配置狀況

【天津六日發電通】某方面調査에 依한 五日現在의 張學良軍配置如左
一、熱河에 侵入한者 凌源、凌南、平泉의 三個旅
二、秦皇島方面前線에서 灤州一帶 步兵四個旅, 騎兵二個旅, 外輪當中의것 一個旅
三、天津附近에서 塘沽一帶四個旅
四、北平附近 一個旅

熱河奪取防止코저 日本軍後方擊衝?

朝陽義勇軍에 錦州奪還命令

日本軍機先하야 義勇軍討伐?!

某有力한方面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山海關事件直後인 二日 張學良은 北平에 緊急旅團會議를 開하고 日本軍의 北寧線進出과 熱河侵攻을 防止하라면 日本軍의 後方을 擊衝하는것이 最善의 策이라고 同會議의 決定에 依하야 現在朝陽에 在한 義勇軍에게 錦州奪還을 命하야 行動을 開始케하는 同時에 開始에 在한 義勇軍의 行動을 助하도록하고 赤峯에 在한 第二混義勇軍에는 前記兩軍의 行動을 支援하야 熱河의 政治的動搖가 일도록하라는 命令을 發하얏는데 이命令이 施行된다면 遼西方面에 治安은 一時混亂을 免할수업다는바 目下 日本軍에서는 熱河境內에 在한 義勇軍의 討伐을 機先을 取하야 斷行할 意向이라 한다

北平에 補充次 商震軍移動

大原서 閣軍事會議

外平漢線에서 近近 一個旅가 移動할터이다
五、保定附近及其南方 平漢線 二個旅
六、平綏線方面 一個旅
七、古北口方面 一個旅

【北平六日發電通】張學良軍의 熱河及山海關方面에의 移動이 縮行되어 宣化의 第十五旅一萬二千五百은 四日부터 五日에 北平郊外 南苑의 砲兵第六旅의 第十二團及通州의 第八旅全部四千五百은 모다 居山方面에 出動하얏다 綏遠에 在한 商震軍約一萬은 北平及南苑에 補充코저 移動準備中이요 此外山西의 閻錫山은 大原에 軍事會議를 開하고 張學良軍北進에 伴하야 北平方面에 進出計劃中이란 確報가 잇서 北中의 軍隊移動은 畢竟全面的으로 本格化하얏다

日銀發行額減少

【東京六日發電通】六日에 經越된 四日現在의 日銀帳末에 依하면 兌換券發行額은 繼續하야 一億四百萬圓의 激減을 보앗는데 이는 日銀이 本格的으로 通貨調節에 進出하야 新年劈頭市中銀行 其他의 要望을 容하야 本支店을 合하야 約一億圓에 遂한 多額의 大藏省證券及公債를 賣却한 結果이다 이때문에 預金도 一千七百萬圓이 減少하고 잇때 六日도 公債賣却을 行할작정이라한다

山關에 軍車集結

堅固한 防禦陣地도 構築中

張, 熱河積極攻略

關東軍도 俄然緊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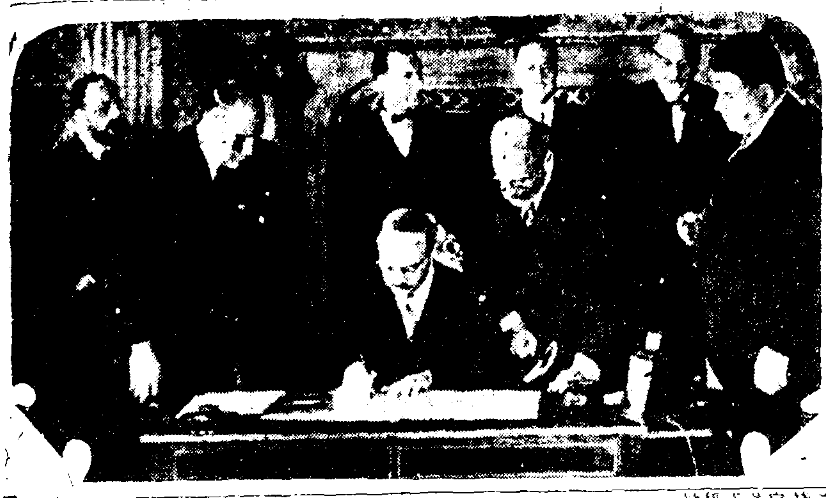
【奉天六日發電通】情報에 依하면 恐喝掠奪을 行하는中으로 되잇다하면 石河右岸에 後退한 民國軍本大倉에도 相當被害가 이다 은 堅固한防禦陣地를 構築中으로 民國軍의 第一線은 山海關의 西熱河省境 乾溝鎭에 向하는 街道方面으로 北으로一에는 五日來後續의 正規軍이 陣地를 構築하고 其西方에 更히第一線部隊中으로 張學良의 熱河攻略 第二陣의 構築을 急히하고잇略은 公然目的하야 關東軍은다 俄然緊張하야 잇다

【佐世保六日發電通】○○艦 北寧鐵路局長高紀毅는 長官總監【天津六日發電通】張學良은 佐世保鎭守府에 電話를 北寧線輪送指揮官에 任命하고 過日 秦皇島方面과 民國軍은 着着集結來名鐵路局의 車輛連絡에 最便中으로 總數一萬內外로 又步兵團한 京津間豐台驛에 集中시켜 第十五旅가 天津方面에서 南援 五日夕까지 約九百輛이 集中된 到着中인데 右中第二十旅의 二旅와 此에 從하야도 張學良의 對日關于은 秦皇島의 中人街에 駐屯하 戰決意의 强硬한것을 窺知할수

義勇軍三萬도 熱河에 進出

萬은이미 移動開始

【開魯六日發電通】東蒙將軍 杜上陸은 命令을 受하고 經費二十五萬圓에 對한 韓國軍司令 湯玉麟은 手回張學良에게서 義勇軍團을 入手하고 大小團隊團員을 勸誘하야 部隊의 編成中으로 이 義勇軍三萬名을 熱河方面에 進出시키바 約一萬名은 移動을 開始하얏다



新年御宴

五日宮中에서

【東京電報】五日宮中에서는 內外文武官八百餘名을 불르시어 新年御宴을 베푸시엇다 陸海軍大將, 參內定席에 着席 天皇陛下께옵서는 陸軍禮式의 御正裝으로 나옵시고 各皇族께서 陪從하사 豐明殿正面玉座에 着御하시어 勅語를 내리시고 齋藤首相은 首相을 代表하야 奉答辭를 되린後 御宴이 開設되엇다 【三로야놉스킨】駐日蘇聯大使以下 各國使臣, 齋藤首相以下各大臣, 親任官

◇佛露不可侵條約署名

去年十一月二十九日 巴里에서 駐佛露國大使 도一갈렌스키氏가 露佛不可侵條約에 署名하는光景 이條約에 依하야 從來오래 疎隔되어 이든兩國은 새로 經濟的接近까지를 엇게되엇다 露大使右側에 서잇는이는 佛國首相에리오氏

株式時勢續報

◎東京短期後場

	後引	高價	低價
東新	二三五六〇	二三八〇〇	二二三五〇
大新	一三一九〇	一三一九〇	一二六〇
鐘新	一一八〇〇	一一八七〇	一三七六〇
日産	一二九〇〇	一四八〇〇	一一九八〇
東新	八〇〇	八〇〇	三六〇

◎大阪短期後場

	後引	高價	低價
朝新	五三四〇	五三四〇	五〇九〇
大新	二一八〇〇	二一八〇〇	二六五〇
東新	二七〇〇	二八〇〇	二五〇〇
拓新	一四六〇	一四六〇	一三九〇

◎朝取短期後場

◎橫濱生絲後止

	當限	先限
後止	九一七	九二五

今日本紙十面

社會政策法案 全部不提出?

勞組法, 商店法等

【東京六日發電通】內務省에는 改正都市計劃法(都市計劃課) 今議會에 提出할法律案에 關하야 關係)兒童虐待防止法(社會局關係)의 政府의 無事主義的 對議會策 係三法案及 選擧法改正法案을 反映하야 자못 消極的態度를 取하야 京都制案等으로 多年懸案인 勞働組合法案, 勞働爭議調停法改正을 持하고잇는바 現在提出키로 決定한것은 겨우 醫師의 素質向上及河川法, 道路法의 改正, 商店法을 圖하라는 改正醫師法案及 改正齒科醫師法案 (以上衛生局關係) 都市發達의 現狀에 卽하야 町村에도 都市計劃法을 適用하라 의制定等은 中止하기로 決定하얏다

鮑文越南京行

張의 命令으로

【北平五日發電通】山海關事件處理를 爲하야 張學良은 五日 午後五時十五分發 列車로 鮑文越을 南京에 急行시키고 鮑는 中央의 指示를 請할터이다

消息

▲金起用氏 (滿洲南中救世病院) 內疾襲腔에 入院키爲하야 今七日朝京城出發

人生問題

○종교의 뎨힘

지금은 발견과 발명의 시대이다 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의게 가치잇는 신 발견을 뜻하고잇으며 천재들이 一층 행복의 생활을 얻게하려고 새 의장을 찾고잇는것이다 우리는 다 발견자들이다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우리는 늘 신발견을 하려한다 그러나 우리가 죽요 사실들을 실험상 실지로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실을 그러케 안다고할수 업슬것이다 아희가 불의 뜨거운것을 알녀면 그 손가락이 데여보아야 하고 사랑이 단맛을 알녀면 그것을 맛보아야한다 종교에 대하여도 그러하니 사람이 도리를 배화서 그것을 실험하기전에는 그것이 참인지 거즛인지 알수업슬것이다 「예수」 ― 말슴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왓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니라」(요七〇十七)하셧다 말노 「그리스도」의 교훈을 좃으려고 힘쓰는 누구나 성실한 마음으로 계속하얏던지 실현이 이섯던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면 커는 어떠한 문제와 의심이 잇슬지라도 마츰내 모든 인사의게 한 본분심을 니르키는 뜻이다 려지지

귀부인화장에 변치안는 박가분
京城蓮池洞二七〇 朴家粉製造本舖

文具卸商
コーラス印文具 キリン印紙製品 製造發賣元
コーラス輪轉謄寫機本舖 コーラス、チエーンストアー本部
大阪市南區瓦町通四丁目
出田商店
電話船場 一二〇五九番 振替大阪 四六四二番
(同業者ニ御知リ 商報 迄 品)

新春劈頭의 先陣을 裝飾할 滿天下待望의 新家庭의 創刊 第一號 出來
萬紫千紅의 菊版 二百頁 ◇定價一部二十錢 送料一錢
新家庭 新年號
發行所 京城光化門通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〇〇番

祝 新家庭 創刊
■新家庭의 實際 ■헌울의 國際的 指導者 ■주시의 教育 ■오시에 實用 ■金를 아세요 ■사리랑 러리에 ■光明 實際 ■이되어 間의 解決 ■라디오 引導 ■李金 貞活 ■漢 부리에

家庭婦人
創刊辭 宋鎭禹
◎現代女性과 日常禮儀
◎世界情勢는 어떠한가
◎三國時代의 女流文學
◎保育運動界의 十年史
◇愛人생긴男便과 안해의注意
◇婚期찬딸을둔어머니의注意
女王巡禮記
■東洋의 女王들 李允宰
■西洋의 女王들 白樂濬

懸賞 實話 文藝 募集規程發表
特別附錄 『어린이畫報』 四色印刷 四枚一組
이즐수업는 어머님말슴
今年의 主人公 닭의 傳說
새해놀이 室內遊戲法 몃가지

박새해 新年의 異域
夢單의 客窓인 씨에 愁心
◦뉴욕의 그날밤 아리마
◦伯林의 그새벽 羅蕙錫
◦古都金陵日記 林孝貞

◎漸落原因 ◎音樂의 要素 ◎皮膚의 美容

新進女流連作小說 第一回 朴花城
젊은 어머니? 連作小說
◎언니와 아우
◎펄처진날개
◎승쓴勝利者
◎三十年流行
◎兒童冬服製法과 圖案
◎母性의 子女教育秘訣
時調 새해 小慶
詩 그후부터
人形

學界에 活躍하는 獨逸의 女性
英國女流詩人 부라우닝夫人의 生涯와 그藝術
世界女流音樂家의 生活斥影

聯載女性 赤裸裸한 生活記錄
寫眞 ◎卷頭畫報
少年讀物 世界各國의 少年氣質
■熱情的 舞蹈 ■科學的 獨逸 ■理智的 佛蘭西 ■快活한 米國
◎어머님사랑 ◎소와 호랑이 ◎엄마목소리
少年少女 마스코트競賞
隨筆 □두농부 □黃昏片想 □어미된罪
새해편지
女子料理 製法 正月食事
싼부에 맛드는法
活字와 印刷 家庭과 化學 離乳期食物
스위트홈 巡禮
분필가루속에서 女子店員의 悲哀 病者와 함께 徹夜 訪問·執筆·原稿 눈물에 저즌日記 病中敎사는사람

朝鮮人爲한會社에 本末顚倒한職員採用

大衆의利益을無視한다고 當局人事行政에非難

조선을위주하고 조선인이 중심되어야할일에도 모든실제가 그러치못해옴은 현실에나타나는 여러가지 사실이 증명하는것이어니와 최근의 몃개사실도 조선인의 존재를 무시하다시피 성의업는 취급을한다

더욱대중의 리익을위한다고 표방하는 반관반민의 사업긔관에 현저히만타 관청사람은 우편배달부까지 관청소사까지라도 일본인에 우선권을주는것은 이미 오랜것이며 조선인을 교육하는 중등학교선생도 조선인을 색책으로 채용하는것은 적임자부족이란 리유로 이전부터잇는 사실이니 새삼스러히 말할필요도업거니와 최근에 나타난두가지사실은 직접관청의 것은아니라하나 조선인에대한 성의의결핍을 여실히 나타냇다

朝鮮信托會社엔 主任級에單一人

拂込金全額의五分之一로 社長舍宅지은米倉

◇……하나는 금七일부터 개업하는 자본금一천원의 조선신탁회사에 관게된것이다 이회사는 조선인의지주또는 재산가진사람이 자긔재산을 관리할사람이 가산을탕실하기쉬운것을 구하기위하야 총독부로부터 주주의 년八부배당을 보장하기위하야 첫해에 十만원을 보조하는 준회사인데 막상설립되고 보니 주임급에는 조선인하나를 겨우 임명하고 모두일본인으로 쌔버렷다 일본인실직자를 위한다면 모르겟거니와 관청 은행 회사 등 모두 상당한긔관에서 상당한대우를 밧는사람들로 은급먹고 퇴직금바더 실직을하여도 생활에 걱정이업는데 붙어다놋코 고급을 다시준다。

◇……하나는 조선미 이출을 조절하고 또경제력이 풍족치 못한지주의 리익을 꾀하기위하야 설립된 조선미곡창고회사에서 파견한경비를드려 사장의사택을지흔것이다 큰회사로써 상당한리익이잇거나 또는 순전한 민간긔관가트면 참견할자가아니나 이회사는 자본금一백만원에 二十五만원불입회사이며 또 사립할수업는 회사임으로 총독부로부터 소화七년도에도 十四만원의 보조금을 주엇다 이와가티 총독부의보조로 경[illegible]사가 이번에 약五만원의 비용을드려 사장사택을 숭이동(崇二洞)방면에지어노앗다 四五만원이라하면 불입자금의 약五분지一、총자본의五분지一을들여 사장사택을 짓는다는것은 조선이아니고는 볼수업는 현상이다

鐵道局昇給者數

철도국에서는 관임관이상과 월급고원의승급승관을지난三十一일부로 발표한바 승진한관임관이 二八二명, 철도수二七명, 촉탁이三명이오 고원으로 승급한것아一천三백八十四명이오 용인으로 월급고원이된자가 十一명으로서 그부를합하면 一천七백六十七명이라한다

金警部事件 不起訴決定

협의가 박약타고 금일처분 暴行墮胎告訴問題

영등포(永登浦)경찰서김(金)지사법주임에 대한 포력등고소사건에 대하야는 그간경성지방법원조전(早田)검사가 담당하야 취조중이드니 원고조복례(趙福禮)외불원권유산은 김경부의폭행에의한 협의가박약하야 불긔소처분을하얏다한다

粗炭을發明 專賣願提出

시내리화동(梨花洞)二十五번지 신우균(申玗均)(三七)씨는 벼ㅅ겨를가공하야 그냥 버려로써는것보다 화력이강하고 경제되는 조탄(粗炭)을 발명하야 전매특허원을 특허국에 제출하얏다 종래겨는 그냥연료로 써엇섯는데 그대로써기는 몬지가날리고 사면에 흐려지어 불편하기 짝이업스며 풍로를쓰지 안코는 방을지울수업고 오직온돌의 보온용으로만 쓸수잇슬뿐임으로 이결점을 보충하야 경제적으로 유효하게쓰도록 겨를원료로 하[illegible]고 또어[illegible]를 오로고착케하야 연탄과가티 만든것으로 이것은시험한결과 한되밥에 장작이면 五六전이 드는데 이조탄이면 二、三전이면 충분하고 그리고시간도 장작이면 二十분 걸리는것이 이것이면十분가량으로 지을수잇게 화력이 강하다고한다 그리고 밥지은뒤에 여온이한시간이상을계속한다고한다

王德林其他 反滿軍討伐

평강부대도 삼일에진발 磨刀石을襲擊占領

【하르빈四일발전통】 ○○사령부발표――길림성경에 근거를두고잇든 리두, 정초, 왕덕림(李杜, 丁超, 王德林)등 반만주군의 토벌은 정월초하룻날부터 개시되엇다 제○단의 선전부대 원부(園部)○대는 그믐날 부터 행동을개시하야 령하 三十도의 치위를무릅쓰고 一일오전 六시에 마도석(磨刀石)을 습격하야 점령하고 계속하야 ○○대는 팔마구(八馬溝)를향하야 진격하얏다

이싸움에 반만주군에 다수사상자가생기고 일본군측에는 전사 一명과 부상자十四인이 낫다 광뢰(廣瀨)장군이하 ○○○명의 평강(平岡)부대와 기타동부선토벌군 주력제○○대는 반란군을소탕하기 위하야 三일오전 八시에출발하얏다

李鍝公御歸東

동긔휴가로 귀경중이시든 리우공(李鍝公)전하는四일오후十시 二十분 경성역발렬차로 도동하시엇다

二重放送遲延 기게사정으로

조선방송협회(朝鮮放送協會)에서 착착진행중에잇는 十키로二중방송의 실시긔일은금一월말일이엇스나 동경으로 주문한 두개의 긔게중한개만은완성되엇스나 다른한개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말미아마 아직까지완성되지못한까닭에 약一개월가량이나 늣게되리라한다 이미 완성된 긔게만으로라도 속히 내어다가 먼저조선측의방송을 시작하고 일본측의방송은 재래로 설치되어잇는 一키로로 림시방송을할작정이라 한다

나무에치어 青年이慘死

【동상】 함남신흥군 동상면원동리임구(新興郡東上面院洞里一區) 삼림속에서는 지난十二월二十九일오전十一시경에 나무에마커서 비참하게죽은 청년이잇다 그는 본적을강원도(江原道)에둔 량태순(梁泰淳)(二九)으로서 전긔주소에서백원조(白原組)의 목재벌목을 하든바당일도 나무를 버이다가 갑작이 나무가 넘어가는데치어서 약十시간후에 참혹한 죽엄을짓게된것이라한다

彦陽改良契 契金用途不明

總會報告收支不同

【울산언양】 울산언양(蔚山彦陽)의개량게(改良契)에서는 게장급서긔가 오래동안 총회를열지안허 三백게원의 몰의가분분하다함은 긔보하얏거니와 거의 강제적으로 지난四일 오전十一시부터 언양(彦陽)읍 게장김리득(金利得)씨집에서 다수게원출석으로 총회를열엇는데 수입금은 전부 一만四천백五원十一전이오 지출금이 一만二천八백원四十二전인데 그남어지돈一천三백四원六十九전중 현재동장에 남은것이 단一백十二원八전이오 남어지一천수백원의 용처가 불분명하야 예상과가티큰 파란이잇섯는데 그중 게장김리득씨가 평의원에게 하등말이업시 지난七년八월二十一일 三백五十원 동년十二월十六일 三백원의 증서를차입하고 사용한것을 자백햇스며 남어지五백四十二원六十一전은 서긔 김주해(金鑄海)씨가 사용한것이 판명되엇다한다

이개량게(改良契)는준수리조합(準水利組合)령으로되어 장차감독당국에서도 엄중 조사할듯하나 평의원과 감사등도책임상 而제의진행을 중대시하야서 서류전부를 즉석에서 인게하야 엄중조사중이라한다

古邑水組評議會

【백마】 지난三十일오후一시에평북의주군고진면(平北義州郡古津面)고읍수리조합(古邑水利組合)평의원회를 동조합에서 개최하고 금년도세출예산 추가개정에관한 자문이잇섯다 한다

武裝한共產黨員 咸北茂山에侵入

自衛團一名을射殺

지난三일오전여섯시경에함경북도무산군 지초동(咸北茂山郡芝草洞)총을가진 공산당원수명이 나타나 동리림모(林某)의집을 가르처 달라하는것을당지자위단(自衛團)김국건(金國鍵)이라는 사람이 그부근경관주재소에고발하려고하얏는데이것을미리알은그들은권긔김국건을현장에서총살하얏다이급보를들은소관무산경찰서에서는즉시자위단과련락하야 그들을추격하얏스나다수한선전문을버리고 강을건너 탈주하얏다한다

세멘트窃盜 三百袋를훔처

시내 동대문경찰서에서는 금六일새벽에 시내종로五정목 부근에서 주소부정의 기동아수상한 손천길(孫千吉)(三五)을 검거하야 취조한결과 전날까지에종로五정목 도로개수 공사장에서 『쎄멘트』三백여포대를 절취하야 매각한 절도범으로 판명되어 방금동서에 인치취조중 이라고한다

大昌學院의 寄附募集許可

최창현 녀사의 사재긔부로 基地를購入新築中

시내 견지동에잇는 대창학원(大昌學院)은 그경영자인 최창현(崔昌鉉)녀사가 보통 학교로 승격시키는동시에 내용을 확창하고저三백석추수의토지를긔부하고 긔본재산으로하야 시외상왕십리에 긔지一천五백평을 구입하얏스나 그재산만으로 경영하기는 어려움으로 일반사회에서 긔부금을모집하고저 긔부금모집원을 당국에 제출하얏던바 객협 二十七일부로 총독부로부터 인가가나왓슴으로 긔부금모집에착수하려라고한다

間島서潛入 地下運動繼續

검거된九명의취조는 단락 東門署事件不遠送局

작년十二월경부터 시내동대문(東大門)경찰서고등게에서다수로동자를 검거하야 극비밀리에 엄중취조를 하야 오든 사건은 최근에 이르러 취조의 一단락을짓고 목하서류를 정리중이라는바 서류만정리되는대로 불원간 송국할터인데 사건내용은 작년여름경 간도(間島)로 부터 잠입한 중국공산당 동만특별위원회에 소속한 리모(李某)라는 청년이 신문배달부、인쇄직공、양복직공등 로동자청년의 의식분자를 규합하야 암암리에좌익로동조합을 조직하려더니 한결과 작년十一월경금화산(金華山)에서 동조합의 결당식까지 거행하고 로동자측에대한 지하운동을하기위하야 비밀출판까지 하든것으로 동대문서에서는 치안유지법위반과 출판법위반의 혐의로 부처九일경 송국할터이라는데 송국할사람의 성명은다음과갓다

◇新聞配達夫 兪丁鎬、李丙老
◇印刷職工 盧重賢 李福吉
◇洋服職工 朴是乘 金明元 崔善男
◇其他 李龍錫 韓英植

共產黨檢擧 武器等押收

불온문서도 다수 압수 間島領警이大活動

【간도지국전보】 四일오전 十一시남양평(南陽坪)령사관분서원은 사광사(四光寺)에 출동하야 중국공산당소년선봉대장강동서(姜東西)이하 五명을 검거하야 엄중취조하는 동시에 무긔와불온문서 다수를몰수하얏다고 한다

◇……봄철가튼아츰거리

八道溝에出現 露積에放火

농우한필을 강탈도주해 卅餘名이武裝出現

【간도지국전보】 五일 오후十시 팔도구(八道溝)회녕촌(會寧村)에 무장공산당원약三十명이집결하야 당지조선인민회 참의원 김경희(金京喜)의 집과로적에방화하야 전소케하고 격문수를 부근부락에산포하고 농우한필을 강탈하야 갓다한다

漢江邊에行旅屍

四일오후二시경 부내 한강통(漢江通)十一번지의二十七호김재용(金在用)의집아페잇는 쓰러기통에二十전후의 청년의시체가 잇는것을 발견하고 룡산서에서검시한 결과 병자행려시체로,판명되엇다고한다

青年結項自殺【금천】

향

全朝鮮年賀狀 郵票價卅萬圓

【總數가一千九百十四萬通】 인풀레슌의前奏曲

一九三三년신춘의인풀레이숀 경고를 채색하는 원조의년하 우편은 닭의 우름소리와가티 전조선각우편국을 래왕하얏다 이경고의 활발한정도는 일본내지에비하야 훨신 조앗스니 지난 三十一일까지 전조선우편국이 취급한수가 一천九백十四만六천여통으로 작년에 비하야 실로一할六부의격증을 보앗다 전조선우편격증한편을보면 만주(滿洲)의 이웃 신의주(新義州)가 三十七만七천七백三十여통으로 三할二분의 대격증을보앗고 경성、평양이 一할九분 인천이 一할六분 부산군산이 一할、분등의 증가를보고 감소된곳은 한곳도업다 수로는 경성이 四백一만四천二백七十五통이 제一이오 이천조선의 년하장우표대가 실로二十九만六천七백여원이라는바 전년에 비하야 四만九백여원이 증가되어잇다 그리고 금년에는 관제엽서 보다 사제엽서가만흔것도 특색이엇다 한다

戶稅過重으로 富豪가移去?

邑民은防止運動

【밀양】 경남밀양읍에서는각독리구장들이 밀양읍의 수부일뿐아니라 전군내의수부인 손영돈(孫永暾)씨와 읍내 유력자인 박장억(朴莊億)씨 두사람이 이사가지안토록 진정서를 만들어서 전읍민에게 도장을받는중이라고한다 그원인을듯건데 전과 손영돈씨는 밀양읍에서 매년수천원의 호세를부담하는데 수월전에 호세가 과중하다하야 경성으로 이사하고 박장억씨도역시 그와가튼 생각으로 부북면으로 이사한다는말을듯고 그와가튼 큰부호가 떠나면 면민의부담이 배나되겟슴으로 각동리 구장과 유력자의 발긔로 손영돈씨에게 경성으로 이사를하지안토록 운동한다는데 손씨는 학생공부를 핑게하고잇스나 면민의 운동의 정은 장차어대까지 이를지의문이라한다

恩 富國昌業社 給長期低利立替 遠方通信契約 京城笠井町一百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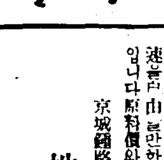
皮膚泌尿花柳病 醫學博士渡邊晋 京城黃金町入口日本生命裏 診察 十二時半까지及夕刻

結核病 肺結核、肋膜結核、骨關節結核、脊椎카리에스專門診療 京城府寬勳洞一九七 醫學博士尹治衡 電話光化門一三〇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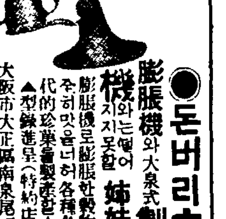
東亞日報京城販賣部 電光七三〇

◎生徒大募集 ◇太平通大漢門 京城實踐簿記學校 男女晝夜 一月九日新學期開始 短期卒業就職紹介 規則要二錢 (電本九四一番)

經濟되는 씽거ー中古品재봉틀 (五個年責任保險附) 씽거ー재봉틀 소틀 六十五圓부터 씽거ー재봉틀 발틀 七十圓부터 其他씽거ー재봉틀新品 工業用여러가지잇습니다 ◎재봉틀 쓰던 재봉틀 賣買 高價買入 賃貸 一月五圓 재봉틀賃貸 재봉틀修繕 針、油、部分品 (目錄進呈) 京城鍾路貳丁目二十七番地 楠商店 電話光化門三九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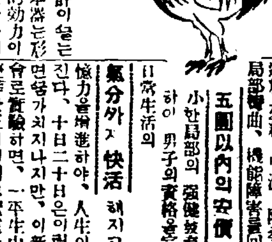
(新發賣) 大泉式製菓機



◎돈버리大王 膨脹機와大泉式製菓機 지지못할 姉妹機!! 膨脹機로膨脹한穀物類를完全히맛잇는여러各種各樣의現代的珍菓를製造할수잇다 ▲型錄進呈(特約店大募集) 製作元發賣 大阪市大正區南泉尾町一丁目 大泉機械製作所 電話櫻川二七一八番

今年만은 一生에一度의新年 性器弱小의男子 强健發育法 一生의好運을開拓하라

世界各國에지지안는 精巧한 專賣特許 ホリック眞空水治器가我日本에서發明되어、海外에서도注文者가만코特許實驗 同부터目前에 곳驚嘆할眞空吸引力과 神秘無窮한 연천의作用을發生하야 治療를重復할수록局部細胞를健全케하야 手淫、過房의害、遺精、早漏、陰萎、無力、局部彎曲、機能障害를回復하야 五圓以內의安價로 小한局部의 强健發育을促進하야 男子의資格을完成하야 日常生活의 氣分外지 快活해지고腦力記憶力을增進하야、人生이光明해진다。十日二十日은이러커러하야 지나지만、一平生中에第一숨로實驗하면、幸福한正月이되고遼遠한前途의 好運이터진다。速히實驗하시가



界의好評이놀는듯하다 本器는形小하고輕便하나理學的效力이크다、一日一回、一回에단十分間씩、自手로秘密히局部에使用하야安全治療를行하면最初의第一

◇醫學博士六十餘大家實驗證明推獎 ◇各博覽會에於て名譽金牌受領 日、獨、佛專賣特許 商標登錄
◎◎ホリック眞空水治器 金四圓五十錢 送料內地卅錢
ホリック包莖安全器 金三圓五十錢 送料植民地五十錢
◇包莖은ホリック包莖安全器로無痛無痛케지안코形成한다。代金引換은(猥褻說明書付)라고注文하면送料代引送料十五錢增
無料送呈 (非賣品)圖入說明書 ―多數實驗例文集付― 葉書로照會하시라……(個人名義로密送함)
東京市芝區新谷町 東京 新療法研究所 大阪市北區堂島 大阪

蔘茸補益水 (삼용보익수)

本劑는蔘茸과强壯에鐵劑을爲君하야發明한特品補藥인바服藥當日로消化力이顯殊하며七八日만服하면食慾이增加됩니다

◎病後虛弱의人 ◎神經衰弱의人 ◎消化不良의人 ◎口味決損의人 ◎身體衰弱의人 ◎元氣不足의人 ◎血虛蒼白의人 ◎手足厥冷의人 ◎老衰咳嗽의人 ◎其他不足症이有한人에仙藥이올시다 ○藥味가順良하야 小兒라도服用이便합니다

定價 壹個月 四圓 貳個月 七圓五十錢 參個月 十十圓 送料一個月分五十二錢

此藥을服用하시는諸氏여服用後實驗에經過를隨送하시와一般에通信케하시기바랍니다

京城府鍾路一丁目 株式會社 模範賣藥商會 電話光化門二〇七七 振替京城四七七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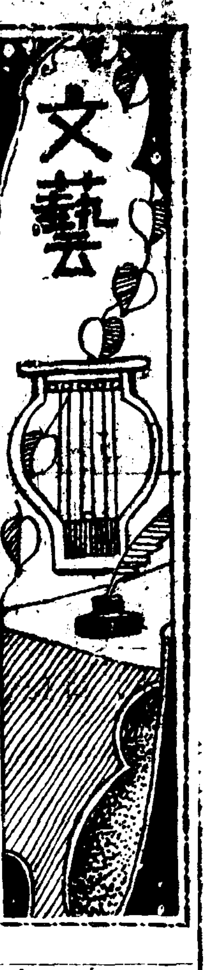
病者의眞福 本社實驗研究部에서多年經驗한妙方各種을擴大로普化하기公開하오니 製劑服用하야 보시오 近來○○○○이라고하여오는各種藥에比하면其實效와價金이確實無疑합니다 本社製藥部에는丸、散、膏、錠、液劑、丁幾製造하는機械을一新設備하고公開하는方文外何藥이던지注文하시면 迅速調劑합니다 이요製藥賃金을特廉케하야

補陽에靈藥 이藥方文은中國醫家에서發見한바多數한人에게實驗한즉可驚할奇效가有합니다 方名은延壽固精丸이요原料는海馬、五味子、肉從容、兎絲子、熟地黃(酒浸)柏子仁、桂心(去骨)北五味子、遠志(去心)、靑鹽、川牛膝(酒浸一宿)蛇床子(酒浸一宿)各一兩式을細末하야 去劑한蜂蜜로丸作二百六十丸하야 一日三回空腹溫酒에五六十丸式服用함 이藥은七日만服用하면下焦冷濕을治하고 尿數症、房事後腰痛、勞困에顯效가有하고 一劑만服用하면 陰陽을補하고 下焦를溫케하야 朝陽不動、腎怯、腎水不足、房事不能、房事에速하고 延年益壽에特效 原料價와製造費는不過六圓以內

京城鍾路一丁目 株式會社模範賣藥商會 製藥部 告白

◎實驗通告 本人은年今三十二歲인바數三年前부터消化不良이生하드니漸次로身體가衰弱하여지며元氣가脫盡하기로補藥各種을服用하엿스나別無差度이드니去月分에蔘茸補益水를服用한바消化가잘되며口味가生하고元氣가回復되는것이顯著하오니可謂仙藥이라感謝함을表코자一般에게實驗經過를紙上에仰告하나이다 昭和七年十二月一日書 慶尙北道慶山郡龍城面美山洞 李元達

ClibPDF - www.fastio.com



文藝 文人座談會 【六】

思潮傾向 作家作品 文壇陣營

出席者 鄭芝鎔、李秉岐、鄭寅燮、朴龍喆、金起林、李軒求、李泰俊、異河潤、尹白南、金億、金東仁、白鐵、李殷相、金一葉、崔象德、方仁根、(投稿) ◇本社側 李光洙、徐恒錫

場所 東亞日報社二階應接室

時日 一九三二年十二月二十日午後四時부터

回顧 —(6)— 一九三二年의 朝鮮文壇에 새로운 傾向은? 活躍한 作家는? 成功한 作品은? 有望한 新進은?

崔象德 新聞小說은 小說이아니라는데에 意見合致하지 안코 各論될만하시는 구먼— (笑)

徐恒錫 新聞小說은 그만하고 다음 小說에 關해서 作家와 作品에 對하야 말슴해주시면 조켓습니다

白鐵 三二年中에 發表된 短篇作品中에는 新人의것이 무게잇섯다고 봅니다 李北鳴氏의 作品中에 印象에 남겨둘것이 만타고봅니다

鄭寅燮 三二年度의 『批判』이나 『女人』에서 朴花城氏의 作品을 가지고 여러말로 떠든모양인데 女子의 作品이 되어그랫던지요?

白鐵 어데서나 男女의 區別을 할必要가 업다고 봅니다

鄭寅燮 男女不等이니까— 그두그래(一同笑) 『女人』에 朴花城氏에 對한評이 만히 나왓는데 어떠케보십니까?

白鐵 不正當하다고 생각합니다

鄭寅燮 相貞熙氏도 만히썻지만 女流作家로는 아마도作家氏를 처음들어야되겟지요. 『白花』와內容이 封建的이지만 朝鮮人에게는 오히려 눈길을만히줍니다

白鐵 그러나 『白花』의效果가 어느程度까지 現代化되어 잇는가가 問題라고 봅니다

鄭寅燮 朴花城氏를 『白花』로 보아서 나는優秀한 作家로봅니다 좀『센티멘탈』한 눈김이 잇스나 主의勢力에도 不屈하는 그러한 描寫는 퍽 잘햇다고봅니다 下水道工事보다 『白花』를 훨신낫다고봅니다

李軒求 『白花』가 단궁한傾向을 보다도 階級性을利用하야 쓴것으로 조타고봅니다 劇場에 가보면 默過밧는데서 拍手를하는 場面이면 觀衆은 拍手를하는것이 常例라 할것입니다

徐恒錫 다른作品도 좀말슴해주시지오

朴龍喆 洪一吾氏의 作品은 大概農村을 取扱한것인데 퍽 조케보앗습니다

崔象德 그의 作品은 比較的 조흔點이 만햇습니다

朴龍喆 얼마든지 發展할수잇는 作家인데 文壇에서 新가튼것도 해주지 안는關係上 그대로 주저물러안가 되는줄압니다

【三等自由畵】 風景 朴聖樂

描寫한것으로는 金東仁氏의 作品인 『발가락이닮엇다』를 들겟습니다

鄭芝鎔 李泰俊氏의 作品이 만혓다고봅니다

方仁根 三二年度에는 比較的 적은것 가튼데요

金東仁 李無影氏의 作品中 『흙을그리는마음』은 좀 誇張的이나마 잘되엇다고 봅니다

崔象德 『흙을그리는마음』— 그作品이 純眞性이 적은데다가 기교가 적엇습니다

李泰俊 大體로 大家들이 短篇이 아니습니다

方仁根 그것은 發表機關問

鄭芝鎔 그사람의 作品中 『낙서질』이라는 것이 잇섯죠 키욱能作이 너무길지 안허요? 종傳式이드구요?

崔象德 中年期 男子의 心理를 다 [illegible] 便이지요

崔象德 雜誌社에서는 原稿料를 내기실혀서 作品만을 실기때문에 量으로나 質로나 貧弱하엿다고봅니다 開闢社에서하는말이

안주고, 실렷것을 山가티채워다고하나 讀者안내려면 그가운데서 집어쓰는것은 正則이겟지요(笑)

方仁根 新雜誌社에서 注文이잇스면, 아조 게쓰라고하는것이 流行이되엇서요

金東仁 三二年度에잇서서는 下水道工事가 短篇中 最長篇일것이라고하겟습니다

李軒求 『雜誌나新聞에서作家에게制限을안하주니까 조흔것이라고 어렵다고 봅니다

李殷相 雜誌에는만흔사람을 실리는것이 좋은作品을 여러個 느려노아 지금 雜誌編輯式이나여요!

白鐵 雜誌에는作家들의 이름을만히 느려노아 그것으로宣傳을삼는것이 通弊이나

李殷相 이번에 經驗을해보앗는데 『新家庭』에 李無影, 李泰俊氏의것을 二十餘頁이나 실엇더니 너무길다고 안에서들 非難이 만트군요(笑)

徐恒錫 그러니까 朝鮮에서는 小說은 短篇이 잇거나 아주긴 長篇外에 中篇小說가튼것은 나와볼수가 업다고 생각합니다. 雜誌에서는 작자 조흔것만 찻지오 그런고 新聞에 혹시 自己의 小說이 連載될 機會를 어든 作家들은 될수잇는대로 질게만 느려며서 原稿料를 한목 치려하는것도 [illegible](笑聲)

鄭寅燮 李영철 어린배의 短篇은 [illegible] 조흔군요

李泰俊 新人中에 崔允秀氏가 만흔 活躍을햇다고 봅니다

鄭寅燮 옳습니다 戲曲도 만히잇는데 그사람은 시골에서 普通學校선생이라고합되다

崔象德 新年이면 各新聞社에서 懸賞募集을하야 當選되는것이 數十篇인데 그곳에서도 新進作家가 아니보입니다 그려

李殷相 怪現象입니다 大家들이 匿名을해서 쓰는것이니까요

崔象德 이번中央日報에서는 한篇에 四十圓을주니 匿名해서라도 當選되는것이 큰수이나요

李殷相 새사람이 업다고보는것은 當選된사람의 이름을 보아서 한번나오고는 다시안나오니 그것이 卽大家들이 匿名하고 쓰는것을 證明하는것입니다

李泰俊 臨時로도 이름을지어 해먹은것이니 또나올때가 잇겟습니까

李殷相 글씨를보면 全部가 그래요

李泰俊 日本모양으로 當選된 作家에게는 實權을 밧아내고 履歷을 紹介하는것이 조치안흘까요

朴龍喆 當選이 된뒤로 繼續해서야 그것이 新人이 되겟지요

李殷相 그러케 말이여요

李泰俊 作品은어씻만 사람은 못어더요 新進이 懸賞에 當選되는것이 不可能한 일이지요 왜그러냐하면 旣成文人들의 作品이 만히 應募되나봐요

李殷相 文人들의 作品이 어떤때는 겨우佳作에나 들어가는수가 만습니다(一同笑)

金東仁 한마듸 더하고십습니다 三二年來로 푸로作家가 正統文藝로 갓가워오는듯 하여서 새理論을 세우다가 正統文藝로 들어오는것 갓습니다 形式을 排擊하다가

白鐵 技術問題가 傳統的으로 制裁하야 內容이 固定化한다든가 政治的으로 藝術的으로 나辯證法的으로 統一된다고 봅니다 三二年度에 잇서서는 유치하나마 그러케 되엇다고 생각하는것이 그중뒤여난다고 생각합니다

家庭百態 (其四)

老處女

어머님 단한분모시고 난대로 늙으려는몸

종교와교육에 일생을 바칠생각 절간과가튼 림순분양택

좁은 골목속에 우뚝이 들어진 경운관장집! 반짝 반짝하도록 새감아케칠한 열각대문은 어느조녀학교 숙사뷰앞가티 한쳐한맛을 엇스나 문패에는 림순분(林順分)이라는 개인의 이름이 쓰여잇섯습니다

문을 두다리니 쨀링쨀렁우는 종소리! 문안에 들어서니 정소하게 쓰며노흔 살림세구와 문반을 마당북관에 이름장으로 둘러채인 우물가 모도가도시럽 간과가티 한적합은 이엇습니다

이집의 주인되시는 림순분씨는 이미쓰고개도 넘으신로처녀입니다 현재 경성녀고보(京城女高普)체조선생님으로 새해오는 봄을헤며 겨우한해모자라는 十년이란 세월을 한결가티 순란하고도 씩씩하게 보내시고 게신분입니다 가족이란 안밧차지하시는 년로하신 어머님단한분이며 그외 가정부의색임을지고잇는일가집 아오님하나가 잇서 단촐한 세식구의살림입니다

『어느때까지 이러케 혼사사시랍니까』

『……』

『웨 혼인을 아니하십니까』

『그러유야 싼하지안하요 그귀찬코 수선한 생활을왜택하겟서요 나는내생활에 아주만족해합니다 이러케 살기로결심한동기는잇지만』

씨는 어릴때 아버님의 며단한바탕생활을하야 어머님의애중하시는것을 눈보고 자라게되어 소녀시대부터 집을조생활이란 원치안햇섯답니다

씨가 겨우 보통학교를마치든해 열네살때에는 수녀가되기로 결심하고 수도원에까지 들어갓셧스나 일이 넘우힘에고되어다시나와 오늘날의 학교생활의리를세우셧든것입니다

『작구 무르시나 내생활은 항상매우 단조합니다 실상신통한 재료거리가업습니다』

하며 웃는씨의 표정은한편쓸쓸하면서도 웃엇시 칭초하고고결해보엿습니다

『극장에서가혹 뵈기도 하든한데……』

『요사이는 그런데도잘아니갑니다 한때는동모따라갓지만요』

씨의 근일에 취미가지시는편을 개여보면 낫에는캐매라작난과 스켓하는것밖에는 독서와라디오랍니다 그려고눈을뻐나바가올뻐나 하로도 빼노치안코오씬다섯시면 새벽거러를 거러종현천주교당 미사제 참예를가시는것이 유일한일과이며 또식사뻐와조석으로 성모마리아 아페서 어머님뫼시고 합장하고 신공하는것어 그날그날의 수양하시는 시간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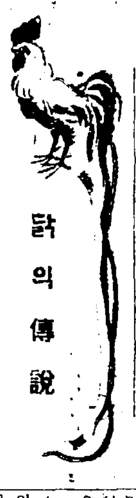
『매일 소용품도 적지안흐터인데 어느틈에사드리십니까』

『왜요 대개는 학교전화로가저오게하고 다른 채소종류는 괘에다니다가 남들사는 데서 가만히 눈치를보아 두엇다가 감을서로 생하지안케 불러서 흥정을합니다 말하자면 남자의일 녀자의일 안팍일을내가 다 하지만 내성격이본래 누긋한편입니다 범사에 숨근숨글으로 수고를 모르지요 사람생활에는 종교가 반드시잇서야합니다 그래야 힘대로노력해서 아니될때에라도 락심하거나 상심하지를 안케되니서 늘유쾌하고 평화스러운기분으로 지낼수 잇슬것입니다 나는학교아이들과 놀재미잇게 날을보내니다』

하며 『허허』웃는 씨의우밉업는 웃음소리는 압날의처녀생활에도 이상이업슬것을 예상케하얏습니다

◇림순규씨와 그의어머님

닭의 傳說



호박죽달게먹은 仙女夫婦의化身

소리소리가 하늘 그리는말

(入賞) 李斗欽

옛적옛적 한옛적 호랑이담배 먹고 이야기하며 토끼춤추든때 이야 갑니다 어느해봄철날이 따뜻하고 잔디풀이 파릇파릇새싹 올내밀며 방긋방긋꽃웃을때 하눌에사는 선녀(仙女)의 두내외가 이영에사는 자긔의가세으로 내려와보겟다는생각이 스스로 남움이키지못하야 한번 내려오려고할즈음에 선녀의 맛아들이 말하되

『아버지 어머니께서는주의하십시요 주의하시지안호시면 큰』

『아버지어머니께서는 큰새가 되기쉽습니다』

셋재아들이 또말하기를 『호박죽은 잡숫지마세요』 하엿습니다

이러케 三형제가 제각기부모님에게 주의를 엿주엇습니다 선녀부부는

『오냐 걱정말고잘잇거라』

대답하고 나서 지구에사는외가집으로 차저오다가 중간에서 길을잃허버리고외딴길로 돌엇습니다 그러나나려오고본즉외가집은 아니고 외四촌누이집이엇습니다 이때에외四촌누이는 하늘에사는 선녀부부가 자긔집을차저 온것을보고 크게깁버하여 나가서 마저드린후에 곳정성을지으려고하엿습니다 그러나 그날그날 겨우지내는 형편이라 하는수업시 정성것 조밥을지어 드렷습니다 선녀부부는 고량진미도 입에 맛지안하하는데 놀한조밥을 먹을라가 이겟습니까 한술도먹지를안핫습니다 그러니 외四촌누이는 더욱이미안하얏습으로 지녁을 지으려하엿스나 좁잇든좁쌀도 전심에다섯습으로 하는수가업섯습니다 생각다못하여 호박죽을쒀서 대접을 하엿습니다 그런데 선녀부부는 하눌에서 내려올때에 셋재아들이 호박죽을 먹지말라고하엿는데 하는생각으로 먹지안켓다는 결심을하얏습니다마는 하도 외四촌누이가 권함으로 이기지못하여서 손곳으로 찍어서 맛을본즉 꿀가티 달고도맛남으로 셋재아들이 말하든것도 이저버리고 먹기시작하여 한그릇 두그릇 세그릇까지 다먹고 다시 또먹을라고하엿습니다 그때에 외四촌누이는

『허허 참아먹겟다고 하더니 세그릇이나 먹으면서 먹겟다고해드면 가마까지 싸먹을번 하엿구만』

하엿습니다 이때까지 맛나게먹든 선녀부부는 약작 놀래면서 꾹고ㅡ소리를치며 방안에서마당으로 뛰어나가며 금시에가 하든 이약이도못하고 꾹고ㅡ소리만 칠뿐이엇습니다 외四촌누이는 선녀부부가 그만큰새가된것을 슬퍼하며 방안에다가 기르기시작하고 선녀새라고부릿습니다 선녀가 하눌도 올라 가는것은 항상새벽인으로 하늘에잇는 선녀의아들 형제는 날이새도록 부모님이 올라오지를안 중심으로

『아버지 어머니 어데서 왓나요』 하는 소리를 三형제가 한꺼번에 크게소리질럿습니다 이때에 너의 남편은숫닭이되고 선녀는 암닭이 되엇습으로 숫닭이대다 봐다는것이 말은못하고 『꼬ㅡ』 소리를 질렷습니다 이소리의 뜻은

『외四촌누이네 호박죽먹고못올라간다── 아락갑다』

하는뜻입니다 이소리를 매일바에서 식그럽게질름으로 외四촌누이는 마당에다가 집을적게 짓고 길르기 시작하엿습니다

선녀가변하여서 새가 되엇스나 지금은변하여서 닭이라고 옛적에는 선녀새라고불넛스나 지금은 닭이라고 불르는것입니다 지금닭이 먹뻬를 엄치안는것은 하늘에 선녀의자손들이 새벽마다 봄으로

『꾹고ㅡ웅』

하며 대답하는것입니다 지금닭이 관을벗지안코 쓰고단기누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반인까닭입니다

옛적에는 선녀새라하야 닭을잡어먹지를 안핫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이런이야기를아는 사람이 적은싸닭으로 닭을잡아먹게 되것입니다

지금 닭의소리를 소개하겟습니다?

나래를 치는것은=놀래는것입니다

(수탉)꾹꼬ㅡ옹=외四촌누이네 호박죽먹고 못올라가다 ──아락갑다──

(암탉)갈갈갈갈=아락갑다아락갑다

(암탉)꼬댁꽃꽃꼬댁꽃꼬=못올라가서어떠케할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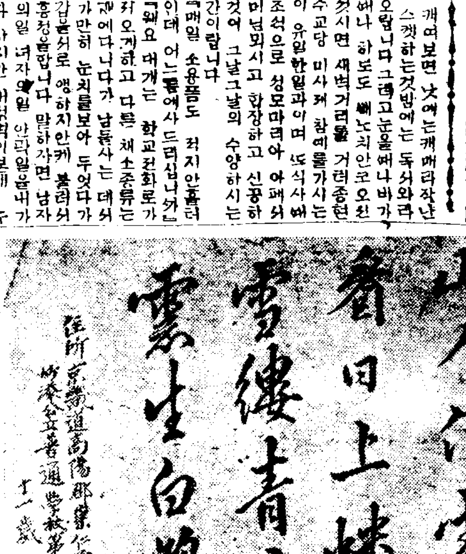
이인이인(알낫코)

(수탉)꾸덕꿋꿋꾸덕꿋꿋=못올라간것을 어떠케하노 어떠케하노

(병새리)예양예양=어머니! 어머니!

(닭이밤에잘때)꼬르르륵=흥 박죽을왜먹엇노──

이와갈아 닭의소리가 여러가지입니다 여러분자세히 들어보십시오(끝)



【三等習字】 京城竹添公普 黃仁哲

新刊紹介

紹介를願하는 冊子는 一切 本社調査部로
△注文 은一切當該本社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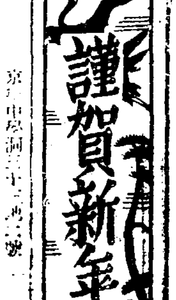
▲**全線新刊號** 農村生產의危機와『農村救濟策』, 漁民生活의慘狀과 그救濟策, 物質的生產力과社會組織, 天道敎統行事件紙上檢討, 一九三二年間의朝鮮新行組織著, 世界日系露人의現勢, 朝鮮으로 和衞運動新聲賓, 系統發生的으로 文藝 其他 發行所 京城貫鐵洞一〇三 全線社 定價十五錢 振替京城五三二一番

▲**別乾坤 新年號** 금년은 이러케합시다, 各界人의新年劇相記, 제자랑座談會, 하나가큰말청 發行所 京城府慶雲洞八八 開闢社 定價十錢 振替京城八一〇六番

▲**新女性 新年號** 김부의惱宗者, 外國語와 異國女性, 異域의除夜鐘, 處女大座談會, 現代男性에게의抗議, 新女性과新女性의行路, 새해새날 一千萬女性동무에게 其他 發行所 京城慶雲洞八八 開闢社 定價二十錢 振替京城八一〇六番

▲**어린이新年號** 새날이왓다마음에간직하자, 조선말을사랑하라 其他 發行所 京城慶雲洞八八 開闢社 定價十錢 振替京城八一〇六番

▲**木浦評論新年創刊號** 木浦女流運動界直觀, 木浦朝鮮人新聞記者評, 女性과위대리쓰文學 其他 發行所 木浦府竹洞一九 木浦評論社 定價三十錢



京城府中學洞十一番地
各種企業化學工業品製造 敎授及原料賣買
朝鮮中央化學工業所
朝鮮職業案內社
所長兼社長 金信德

◇羅 津◇

羅津港 海洋學院
院長 金大甲
委員 金秉國
同 尹長鶴
同 崔明煥
財務 金貞善
務員 朴範濬
同 姜璐燮

羅津港新安洞 南斗建
羅津港新安洞 木材商 申敬文
羅津港 明治醫院 醫員 金京泉
羅津港 拓殖 尹長鶴商店
羅津港新興洞 院長 金鳳翼
羅津港 商店 崔明煥
羅津港開作洞 崔秉國
羅津港 金春吉

◇馬 山◇

御旅館 料理 馬山府京町 鳳仙閣 田中悅之助
鎭東灘溫泉場 姜泰昊
馬山商工會長 小島孝
馬山府石町 仁壽商店 金石泰
馬山府石町 李泰守
馬山府通町 司法代書人 諸葛楨
馬山府富町 慶一商店 禹道洪
馬山府俵町 李弼國
北馬山驛前 米穀商 李學榮
馬山府元町四丁目 朝鮮活版所 金履采 電話 四五〇番

三水郡新乫坡鎭 中和旅館 平和理髮館
水郡新乫坡齒科醫院 院長 劉熙慶 電話二六番
三水郡新乫坡 尹成春
三水郡仲坪里 金 銀 館

龍角散

絶對로副作用업고! 效果가가장迅速!

龍角散은優良藥만配合하얏스므로, 獨特한小兒이라도藥効 顯著하고, 香味가爽快해서먹기가조흔故로, 藥실흠하는사람, 長病人小兒라도잘먹고, 爽快하게治療되는目的을達합니다.

◆龍角散適應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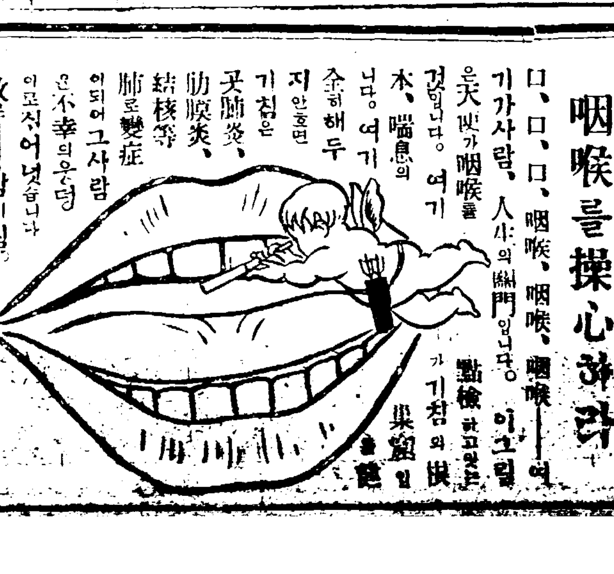
痰咳症	담으로눌룩룩하는病狀
喘息症	천식으로 그르렁 거리고숨찬病狀
咳不眠症	기침이자조나고밤에잠못자는病狀
流行感冒	돌림감기로일어나는여러가지病狀
肺病咳	肺病으로들바튼 기침나는病狀
血痰症	담에냄새나며가래피가섞기는病狀
咽喉痛	목이쉬고 咽喉가아픈病狀
小兒咳	百日咳又는홍역기침의病狀

定價 二日分 十錢 四日分 二十錢 八日分 三十錢 十八日分 五十錢 四十八日分 一圓 六十五日分 二圓

本舖 株式會社 藤井得三郞商店 東京市神田區 振替東京九一番

▽全國各藥店에잇습니다△

담기침 천식



天使는속삭인다 咽喉를操心하라

口、口、口、咽喉、咽喉、咽喉──여기가사람、人生의關門입니다。이그림은天使가咽喉를 點檢하고잇는것입니다。여기가 기침의 根本、喘息의 巢窟입니다。여기를 조심해두지안흐면 기침은 곳肺炎、肋膜炎、結核等 肺로變症 이되어 그사람은不幸의운명이 되고맙니다 故로── 담기침、喘息에걸리거든、龍角散을 [illegible] 龍角散、龍角散、龍角散을 잇지마십시오。

魔都의 香불 (四十三)

方仁根 作
李青田 畵

외나무다리 (1)

「소희야 인제 그만 이러나거라」하고 애희는 분을바르며 여페서 씩씩자는 소희를 돌아보고 소리첫다。소희는 방아쌔가 되어서 공부함에 몰린상을 다 풀나는듯이 아침에도 늣게 이러낫다。

「아이 곤해죽겟는데 또쌔비」하고 소희는 기지개를 한바탕 노려지게하고는 잡 뼈변 의레히 응석하는버릇으로 퍽 어리게 말하며 돌아누웟다。그들의 어머니가 죽은뒤에는 소희는늘 애희를 형님겸 어머니겸 삼엇고 애희는 실상 소희를 동생처럼 딸처럼 사랑하얏기째문에 소희는 여편해 몰리지 안치만 소이가 어머니에게 하든 응석컨부를 형인 애희에게 옴긴것이다。소희는 누운채 자려옷소매에서 쑥나온 길다란팔로 형의 허리를 써안으며

「언니 오늘 그래 정말 온양온천 가우」

하고 잡고대처럼 말하엿다。

「그래란다」

나오고 칩지도 아니하고 늑상해 죽겟서ㅡ한강이 어서얼어야 할텐데ㅡ오늘은좀 춥가? 난요새 길을 지나면서도 ㄷ랑외투이 입어나아엇엇나 그것만 자세뵈다우」

「스켓 팡이 ㄷ구나ㅡ솜 놀엇니」

「그럼 놀구마구 금년에 경과 스켓을 처음댓서도 쏙쏙 잘나가든데ㅡ참나두 정거장에나가야지ㅡ퀸별하런」

「얼마ㄷ 하렴ㅡ참 나오느라 어쩐지 멀리멀리가는것가티 섭섭하다」

「뭘 고사시데 삼백리도 못되는데」

「그래도 안가보데는 십리밧게라도 멀게 생각된다」

애희는 긴머리채를 아프고녕거ㄷ리고 엄게빗질을 하엿다

「내 빗겨줄가」

「모 려나」

소희는 형의등뒤로가서 그의 머리를 빗겨주며

「누구누구 정거장에 나간다우」

「링직이나하고 일남이도 나

「몃시찬데 이러케 서둘곤」

「온양온천으로 곳바루 가는 차인데 여덟시 사십오분이란다」

「아이 나두 갓스면!」하고소희는 안방에안불러도록 갑작이 가만히 말하엿다。애희도 역시 목소리를 나추워

「글세 가치갓스면 좀조켓니 그래도 엽부가냄결 어써니ㅡ 일남이가 그러케 졸라도 안 데리고 가지안니」

「아이 왜 그럴가」하고 소희는 풀이 죽어쉐호게말하엿다。

「글세말이다」하는 애희는 한층더 귀량스러웟다。

「난 언니 가면 혼자 심심해 어써케 하나」

「나도 정말 가기실타 너하고 놀앗스면 조켓는데ㅡ작년에겨우 배워둔 스켓도 못해보고 다 이저버리겟다ㅡ」

「난 언니가던에 스켓이나 실컷할테야」

「그래라 더 어째도 갓섯지?」

「그럼 그런데 창경원에갓다가 안한다고해서 삼청동으로갓섯다우 골덕지가 나서」

소희는 인제 잠이 다 째드시 벌떡이러나서 옷을 주섬주섬입으며

「아이 올 겨울에는 눈도만히 갈는지 몰라」

효원 나무가지에서 참새들이 색색하며 푸른푸른 날어다니는 소리가 들리엇다。

「몃줄이나 걸린다우」

「글세 그것도모른단다ㅡ갓다가 랑에서 『이미기』나 나와서 얼마뜨거워라하고 얼는올라오게 되엇스면 조켓다」

「이미기가 뭐야」

「온천 목욕탕 물구녕에서 구렁이가흔 이미기라는것이 각금 나와서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예이야기가 잇단다」

「아이그머니나 무서워라」하고 소희는 빗질을 하다가고 두손으로 형의 허리를 꼭쎼안고 머리를 애희등에 콱박으며부르르떨엇다。

「호호호그러다는이야기지 그럴리가잇니 그게 다 미신이지」

애희는 조반상을 바뎃스나먹가가싫코 공연히 가슴만울렁울렁하엿다。

자동차가 왓다고하며 숙경은 실네발을치며 재촉을 하여가지고 짐을실코 운전대에는칭직이가 타고 뒤ㅅ간에는 숙경이일남이를 무릅에안치고 그여페애희와소희가안젓다。그러케 북새를 노컷마는 엽집에잇는 영철이는 웬일로 내다보지도안나하고 애희는 은근히 속상하고 기다려

謹賀新年 ◇無極◇

陰城郡 金旺面 職員一同

陰城郡金旺面無極市 綢緞布木 洋糧雜貨 各種石油 商 旺昌商店 主 鄭寅明

陰城郡金旺面無極里 濟生醫院

陰城郡金旺面無極里 鄭壽錄

陰城郡金旺面 金旺消防組頭 米山強五 外一同

陰城郡金旺 無極里 金旺穀物商會

陰城郡無極市 無極釀酒所 張○準

無極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陰城郡金旺面無極里 無極產米組合理事 洪吉杓

陰城郡金旺面無極里 藥種商 洪思舜

陰城郡金旺面無極里 無極醫院 鄭文永

無極郵便所長 池戶專助

陰城郡金旺面無極里 延壽堂藥房 主 崔晃基

陰城郡金旺面無極里 李淵雨商店

陰城郡金旺面無極里 湖春園

陰城郡金旺面無極里 司法代書人 金濟培

陰城郡金旺面無極里 米穀商 高命順

陰城郡金旺面無極里 無極堂

無極和自轉車店

陰城郡金旺面 面長 金鴻俊

河東公立普通學校長 職員一同

新年의工場에서

諸位를爲하야工作합니다 今年도……

더맑고 더깁게 花王石鹼이諸位의生活과 親近하야 健康을守護하고 美를培育하야 全日本의文化向上에石鹼의使命을遂하라는 우리들花王石鹼工場에서工作하는者의年頭의感激은오직그뿐입니다

全國의醫家·産院의各位가첫三日沐浴새부터花王石鹼이라고推奬을하십니다

坊坊谷谷의貴家庭에中性穩和한標準石鹼은花王石鹼이라고말슴하십니다

이가튼信用과支持에激勵되고感情하면서더욱잘諸位의用에副하고자우리는誠心으로工作하기를約束합니다

請컨대諸位의손에서이러나는微細한花王의거품속에今年도美와健康의精을精細히吟味하시기를願합니다

● 첫三日沐浴새부터花王石鹼 ●

純粹度九九·四%

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

本店 東京市日本橋區馬喰町二丁目
支店 [illegible]三丁目
工場 東京市向島區[illegible]一丁目

甲山火田民
「窮村巡禮記」
【八】 惠山支局 梁一泉

共興商會의發展

大洲坪에는 善나은機關이 하나잇스니 그것은 共興商會의 存在다 韓川醫院長 任國彬氏의 努力으로 지난六月부터 이 商會를 開店하엿다는데 消費組合式으로 一人一口 六百餘名의 商會員을 募集하야 基礎도 자못 鞏固하여젓다고한다 此地는 交通이 不便해서 一般物價가 엄청난高價임으로 商業者의 暴利는 日益膨脹하여서 그러치안허도 破滅의 火田民生活은 加一層急速度로 破滅하게되엿다 이에 共興商會의 創立은 오직 이것을 防止하에잇다 中間暴利를 排除하고 火田民의 經濟的當面利益을 圖하는일이 얼마나 조흔일이랴 꾸준한 奮鬪와 압날의 成功이잇기를 心祝하엿다

火田民의 生活裏面

火田民의 生活이 어떠하다고 喋喋히 煩說을 避 한다 다만 그들의 收支打算이나 해보는 便이 조흘가 한다

火田民에도 平地와가티 地主와 小作人이잇고 階級과 階級은 그대로 樹立되여잇다 네것과 내것이란 所有 制度는 儼然히 存在해잇다 돈푼이나 잇는사람은 火田一日耕에 五六圓式주고 四五十耕 사노코 窮民에게 小作을 주게되면 利益이란 實로 莫大한것이다 「甲山火田에도 돈百이나 너흐면 生活은 念慮업는걸—」이 것은 이곳 돈 잇는 사람들의 常用하는말이다 四五十耕의 半收穫! 귀리감자나마 數十石 될터이니 그아니조흔 便인가 自己는 손꼽하나 까닥하지안코 사는사람이 甲山一帶에는 만히잇다 火田民은 벌서 여 긔에서 自己努力의 半을 일어버 리게된다 過剩過重 勞價暴落 等도火田生活의 破滅의 因이되 겟지만 特히 甲山에서는 山間 地域임으로 交通不便이 主要한 因이 아니라고도 할수업다 市場을 距하기 七八十里或은 百里의 山間奧地에서 自己의 所産物을 賣却할수도업고 布木等必需品은 購入해야된다 더구나 서푼짜리 귀리감자 穀物로서는 火田民의 年收入이 二三十圓에不過하니 그들의 收支가 衡平할理가 업다

山中人의 山中樂

深深山谷의 火田民에게 「이런 山僻에 무슨 樂으로 사느냐」고 물으면 異口同聲으로 「平安한맛이다」고한다 하기야 그러키도 할것이다 平地에서 살기보 담은 勞心焦思가 덜하다 만 債權者가 왓더래도 極窮의 生活相을 보고는 식그러운 말 업시 도라가게되고 世苦의 시 달림이 別로업다

(?)森林 草野도조커니와 大自然森林의 趣味야말로 할수업시 조타 봄이면 새가 울고 가을의 단풍 겨울의 雪野 조흔 이 江山의 生活이야말로 天賦의 恩澤이 아니랴 火木이 잇다 양이 잇다 먹을 것이잇다 아츰저녁 귀리감자밥 이 꿀가티달다 숭늉과 마시고 밧갈아먹으니 어느 뉘가 부러 할가 요새는 눈속으로 아이들 은 세를지어 토기산양을 가고 아저씨는 노루산양을가고 밤이면 松火를 켜고 뜻뜻한 溫突에 모여 안저 이야기하며 가며 火田 村의 밤은 한업시 平和한것이다

精米商이 租價地代等
近萬圓橫領코 逃走
벼갑 토지갑 현금등 횡령소비
金地庵潛伏中被逮

【홍성갈산시】 충남례산군 신양면신양리(禮山郡新陽面 新陽里)발정수 김장환(金長煥)(三六)은지난달 十九일에 토지대금을 위시하야 다수한벼 대금을횡령하여가지고 이래행방불명이 되어례산경찰서에서는각방면으로 활동한결과 전긔 김장환은홍성군광천면(洪城郡廣川面)담산리(淡山里)에잇는 오소산 (烏棲山)을 거처부여군(扶餘郡)금지암(金地庵)이라는 암자에 잠복한것을 지난 二十九일밤十시반경에 례산서원이 체포하야 이三十일에 본서로 압래하야 엄중 취조중이라는바 피해자 피해액은 다음과갓다고한다

◀金洪鎭租 十石及土地代金二千圓◀李斗圭租一四石◀尹敎求現金六百圓◀尹仁錫租百六十石◀趙洸熹現金八百五十圓◀松本現金三百圓◀權泰鉉現金四百五十圓◀尹又榮現金二百圓◀孫翼鎬現金四百圓◀朴毅柱租七石◀朴昌榮租二十五石

面長시켜준다고 千餘圓을 詐取
군수의 친척임을 빙자코
容疑者五六人送局

【함평】 전남 함평군(咸平郡)에서 모모면(某某面)의 면장운동을하야준다하고 一천四백여원을 사취한사건이 잇섯든바 함평서(咸平署)에서는 지난十九일에 용의자五六인을 검거하고 十여일동안을 절대비밀리에 엄중히 취조하다가 一건서류와가티 지난三十一일에 목포검사국으로송치하얏다한다

이제 그자세한내용을 탐문하건데 현직함평군수의 친척이라 라주군금정면철천리(羅州郡金井面鐵川里) 남궁봉(南宮逢)(三〇)은 라주군봉황면세류리(羅州郡鳳凰面細柳里) 남게호(南啓虎)와 그의매제인 라주군영산면운곡리(羅州郡榮山面雲谷里) 리게화(李啓華)(二八)외二명이공모하고 함평군에거주하는 윤인부, 신현풍, 친긔찬(尹人夫, 申鉉濱, 基燦)등에게 전긔남군수와 친척됨을빙자하고 면장운동비로 현금 一천四백여원을 사취하얏다고한다 그리고 전긔사건은 재작년十월부터 계획적으로 하여오든것이라는데 전긔피해자외에도 十수명의 피해자가이는듯하다고한다

咸平南郡守談

별항사건에대하야 동군 남군수는왕방한긔자에다음과가티말한다 「그는 절대무근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윤씨가저의매제를통하야 一금五백원을주며 모면의면장을 시켜달라다고하기에 윤씨를 다려다가경고하야 보낸일은 잇습니다」 운운

全蔚山蹴球大會

【울산】 울산류학생(蔚山留學生) 주최본보(本報)급조선(朝鮮)량지국 후원의 제二회전울산 축구대회(全蔚山蹴球大會)는 지난二일오전十시 울산 공보교정(蔚山公普校庭)에서 본보지국장(本報支局長) 임룡길(任龍吉)씨의 개회사로막을 열어 소년(少年)팀청년(靑年)팀의다수참가로 대성황을 이루엇섯는데 소년팀은 우정(友亭)소년, 청년팀은울산청년(蔚山靑年)이 우승하야 오후五시 반에 우승기수여가 잇섯다한다 ‖사진은소년팀우승단우정군‖

水底網後援會
三湖港에서 組織
훌치선盜難도防止

【삼호】 원산과 강원도 일대에잇는 수저망어업자(水底網漁業者)들은 금년에와서 삼호은유비 저조업자 조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주며 온갓 편리를도모하여주기로 되엇슴으로 긔왕에는 모조리 서호와 퇴조등지에 기항하든것이 금동은 삼호를중심하고 집중하야 미증유의량호한 성적을 엇게되엇슴으로 이를감사히 녀기는동시에또는 훌치선이야간에 수저망을간간히 도난(盜難)하는일이 종종잇서 이를방비의목적으로 경비선 배치의필요를일반에 전달하기위하야 수저망후원회를 지난三일 한흥상점(漢興商店) 이층에서 개최하고 여러가지의론이 잇슨후 삼호유지백여명을 초대하야 성대한연회까지 잇섯다고한다

◀委員=元山府上里二洞 根光來 元山府廣石洞 周信源 江原道通川郡歙谷 姜明淳

兩少年싸움 同伴를刺殺
◇지난一일 녕원면에서
주머니칼로뒤통수찔러

【덕천】 평남녕원군 녕원면입한리(寧遠郡寧遠面立漢里)서당에재학중인 왕인관(王仁寬)(一三)과 동면방산리(方山里) 보통학교생도 김창회(金昌華)(一三) 두명은 지난一일석양에 왕인관의서당아페서 하모니가를 불면서놀다가 말다툼이 생기자전긔 김창회는 주머니칼로 왕인관의 뒤통수를 찔러중상을 지엿는데 그날밤에 왕인관은 사망하얏다 한다 가해자는방금 경관의취조를밧는중이라한다

自動車事故

【은률】 지난二일 오후 二시반경 황해도은률금산포(殷栗金山浦)정전(井田)차부 一二호자동차를운전수 공긔섭(孔基燮)이운전하야 청산로인석란(石欄)금산포간을운전하야가든도중 은률군 서부면장암리(西部面場岩里)언덕에이르러 그관의고장으로인하야 자동차가전복되어 승객 一명이 부상하엿다는바 부상자는 금산포진윤서(川允瑞)의처 정씨란 녀자라는데 차의손해는 백여원에달한다고한다

道議選擧運動
영일군포항서

【포항】 경북영일군 민선도평의원(慶北迎日郡民選道評議員) 개선긔가 금춘四월도 림박하얏슴으로 一부립후보자들은 맹렬한운동을 하기시작하얏다는데 포항(浦項)은 건설도청에 비한데 잇느니만큼 一반은 조선인의의리와 여론을대변할수잇는 인격자가 당선되기를 희망한다 한다

邑會議員補選

【포항】 경북포항 읍회의원(浦項邑會議員)중 복도이평(福島二平)씨는 사망하고 춘저지조(椿猪之助)씨 학전염(鶴田稔)량씨는 전근되어 三인이결원임으로 포항읍에서는 보결선거를 오는二十일에 거행하기로되엇는바 립후보자들은 맹렬한운동을 개시하얏다 한다

貧民無料治療

【회녕】 일즉이 경성의전(京城醫專)을 마치고 회녕에나려와서 회중의원(會衆醫院)을개업한 리홍의(李鴻儀)씨는신원사(新院舍)를 건축하고 지난十二월 二十八日에락성케되어 이를 긔념으로시내빈민(貧民)五백여명에게 一개월간 무료치료권을 읍사무소와 본보지국을 통하야 그들에게나누어주기를의뢰하얏다한다

面廢合陳情
맹산애전면서

【맹산】 금월四일에 평남맹산군애전면(孟山郡?田面)에서는 면폐합진정위원 길상태 박용현(吉尙泰方庸炫)량씨가 김성호(金成浩)외四十七인의 련서한 면폐합진정서를 도당국과 군당국에 제출하는동시에 동군수김광일(金光一)씨를 방문하야 장시간상담하얏다는데 이제그진정한내용을들으면 애전면은 대개가화전민이 생활하는 지방인데 작년흉작으로 다수면민이류리하야 남아잇는 면민들로는경비를지출할수업스니 린면인지덕(智德)면에다 폐합하야주든지 그러치안흐면 지덕면상화룡 산 두암 송흥(上和龍山頭岩松興)四개리를부속케 하여달라고 하얏다한다

郡北竹南二面 郡北面에廢合

【함안】 행정정리와 개청곤난에면폐합실시로 함안군 내에서 도죽남(竹南)군북(郡北)두면을 합하야 군북면을 만드럿다함은 긔보하얏거니와 그후죽남면의 사무정리를마치고 지난一일부터 군북면에다 병합하야 방금두면사무정돈에분망중이다 면장은 전군북면장 리한근(李漢根)씨가 취임되고사무소는전군북면사무소에다 당분간 수용하고잇스나 아프로 동사무소의 변동이잇스리라고한다

東面서도運動

【맹산】 평남맹산군동면(孟山郡東面)은 지방이 심히협악하야 七월에조상강하고 八월에처설이 만지하며면적은八방리에 제한외부과금(制限外賦課金)이 매호一원이상이라 면을도저히유지치 못하겟다고 동면내 박순섭 김용수(朴順燮金庸洙)외 제씨는 면폐합진정서를도당국과군당국에제출코저맹활동을하는중이라한다

尙州產組事件
一단락을지어

【상주】 오래동안 문제이든상주산미개량조합 (尙州產米改良組合)사건도 지난十二월十七일로 다락을이루엇다한다 전일에도 보도한바어니와 산미개량조합 간부제씨가 소화五년에 대구잇는 승환상회 (勝丸商會)로부터 대두박(大豆粕) 수천매를 구입하얏는데 두박대는모다어느구석으로달아낫는지 그대금으로 하야금 채권자승환씨는 두박대금 三천여원을조합원三백六명에다 압입히 지불명령을발하얏섯다 조합원은 작년八월에 이의신립을하고 그동안재판중에잇든바 지나간十二월十七일에 판결언도가 잇섯는데 동조합간부들로 하야금 배상하도록되엇다한다

淋病 治療와性病豫防에絶對權威
プラオンヂン(부라온긴)
ゲンゴール

本劑는前日京吉原遊郭吉原病院長佐藤榮先生이十餘年間數千의患者에實驗研究하야、完成發表한新銀劑로、임의多數專門家의臨床實驗에依하면、治淋劑로서의最重要點인深達、殺菌、消炎三作用이敏速的確하고、治淋期間을極端으로短縮할수잇는點은、絶對로他藥의追隨를不許하는바이다。그리고殺菌力이매우强烈하야○、五乃至○、八瓦(尿道粘膜에塗布하는程度)의極少量으로、使用一回마다그效果가顯著히나타나고、洗滌藥等가치藥液과함께淋菌을後部에送入할念慮업고따라서攝護腺炎等을併發하는것가튼염녀는絶對로업고、도리혀이런염녀를豫防하게되는作用은、더욱本劑의實驗을博得하는點이다。
또다시本劑는性病豫防으로使用하야、前記와가티殺菌强烈하야事後數時間後의使用이라도그作用은絶對로期待함

權威잇는博士가淋疾患者의바다시아러두어야할自宅의療法에對하야必要한智識、日常의手當、養生等을親切히써잇는「淋疾은其의治療」라는良書、及文獻其他患者의必要한冊子를今回에限하야無代進呈하오니至急히書로直接發賣元에申込하십시요。

藥價 二〇瓦入(約五日分) [illegible] 五〇瓦入(約十二日分) [illegible] 八〇瓦入(約二十日分) [illegible]
東京市芝區三田通新町 電話三田一六八五 一六八六 日東藥化學研究所
全國有名藥店에서販賣함

小兒의感氣에는 定評이잇는 凜々에限함
◉小兒는細菌에對한抵抗力이弱한故로感氣는가쉽고肺炎에切히야무데苦痛을맛습니다
◉世上父母되이는病을兆候를認知하거든速히藥을해주시는것이緊要합니다
◉小兒藥中의白眉로大衆의貴重한體驗을經하야多年內地에서好評잇는小兒藥凜凜은必也諸位의期待에副할줄로自信을가지고勸告합니다
◉各地有名藥店에서販賣◉
適應症 百日咳感冒 咽喉浮腫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三圓
發賣元 ライオン藥局 大阪市南區長堀橋筋一 振替大阪七四五〇番

廣告 煙草 マッチ 京城北米倉町 宇沢商店 電本一〇一五
染料原料 專賣 東華洋行 京城府漢(?)町九十 電話長本局三九〇二 振替京城一二四〇五

專門製作 精巧無比 商牌 徽章 メダル 各種旗 大久保眞敬商店 京城府黃金町三丁目 本社京販 電七三〇光

學生募集 財團法人 日本齒科醫學專門學校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 出願二月末日迄 (試驗期日 三月一日·二日) 入學案內要郵券二錢

男女麻疾의靈藥 治麻球
定價 五十個入一圓 百個入一圓八十錢
患者諸氏여 言論보다 效果에 事實이 證明되고 試用後可知이것사오며 用法禁忌等은 說明書에 詳記
製造發賣元 京城南大門通四丁目 救世藥館 電話本局二九六九 振替京城一二六九九
此外製劑品四十餘種武

一重大景品付 特別景品一等賞 東洋一週々遊券進呈
舊歲暮大賣出 一月二十五日(陰十二月三十日)까지 三重으로觀劇券進呈
和信

●感嘆!! 感嘆!! 정말頭痛에써조흔 ノーシン 이다●

土金 石金 高價買入 京城明治町 株式會社 京城德力 平壤南門通二丁目 平壤出張所

印材 印章店印擦印 諸印章附屬品 一文部音商 京城府黃金町二丁目八八 中島印材店 電話本局二四四三番 振替京城一五二〇五番 申込限定價表贈呈

라이온치마분
賀正
새해를마즈면서 라이온치마분의 人氣참으로沸騰! 이것 한便은여러분의多年間愛用의贈物인줄깁히感謝의情을表하옵니다 今年에도만히愛用하여주심을바라옵나니다
라이온齒磨本舖 株式會社小林商店

謹賀新年 1933

◇間島◇

間島龍井村 恩眞中學校

間島龍井村 文友堂印刷所 電話二二〇番

間島龍井村 金融社 主 [illegible]國甫

間島龍井村 紙類、雜貨、綿布、麥粉販賣 吉松商店 主 金伯上

間島龍井村 金剛ゴム工業社特約店 各種ゴム靴部 高級洋服部 北滿商會

間島龍井村 裕源東錢號 電話六號

間島龍井村 吉林省官商合辦 延和金鑛公司

間島龍井村 延吉大興電燈股份有限公司

間島龍井村滿鐵派出所 河野通一

間島龍井村 雜貨商 李永植商店

間島龍井村 委托販賣 義成商會

間島頭道溝朝鮮人民會

間島老頭溝 囑託醫士 金敎貞 同仁醫院

八道溝金鑛業 李俁

延吉縣八道溝市 精米業 沈東允

琿春縣市 朝鮮民會

間島道立醫院 金光鎭

濟島病院院長 金煐

間島龍井村 南忠烈

間島龍井村 五十錢均一 和洋雜貨 奈一商店 主 朴鍾浩

間島龍井村 綿布、輸入 同興商店 電話一四二番

間島龍井村 德下屋牛乳販賣所 主 金在用 電話一五六番

間島龍井村 湖南商店

間島龍井村 三益冷麵家 主 李春化 電話二六番

間島龍井村 龍江商店

間島龍井村 綢緞布木商 金龍洙商店 電話二七番

間島龍井村 龍源居飯莊 電話五〇番

間島龍井村 同盛永 電話八番

間島龍井村 盛德號

間島龍井村 海源長

元興當

間島龍井村 太陽堂時計店

間島龍井村 山下堂時計店 主 金昌道

間島龍井村 御料理 惠山樓 電話一六七番

間島龍井村 カフェー 日乃出 主 金本鳳周 電話二三二番

間島龍井村 御料理 東洋館 主 韓致玉

間島龍井村 海東タクシー 主 宋德鎬 電話一八八番

間島龍井村 朝鮮料理 海東樓 主 宋德和 電話一八八番

間島龍井村 黃洋服店

間島龍井村 荒山鐵工所 電話二四六番

間島龍井村 關竹洋襪工場 電略(?)又(カン)

北間島龍井村第一區一統 藥材藥局 間島藥業社

間島龍井村 龍井貯金契

間島龍井村 三光組運送店

間島龍井村 共信社

間島頭道溝 朝鮮人商務會

間島老頭溝 永樂館

間島龍井村 間一食堂

間島 八道溝朝鮮人民會

八道溝鑛業者 徐行活

延吉八道溝市 無名氏

八道溝市 勝一牧場

八道溝市 大發鮮 朴鎭宇

八道溝 延和金鑛公司 鶴鳴硐子分所

[illegible]自動車部

間島八道溝 朝陽學校長 徐相烈

間島八道溝市 廣濟醫院 俞興淳

間島局子街 劉容九

間島局子街 朝鮮人民會

間島局子街 貿易會社 電話八二番

局子街 平壤旅館 電話九一番

龍井村郵局 米濱鐵藏

成北縣居自動車商會 琿春出張所 經理 田昇雲

琿春縣市西門外 滿鮮旅館 主 安國甸

琿春縣市 琿春醫院 院長 李亨來

琿春西門外 川合商店 主 金昌金

琿春 朝鮮人民會 會長 姜周興

琿春西門外 福昌商店 主 朴今蘭

琿春東門內 高麗商店 主 朴熙德

琿春哈德門 朝鮮人民會 長 崔天若

琿春哈德門警察署 署員 金鎬俊

琿春哈德門 朝鮮人民會 主事 李麟泳

琿春哈德門警察署 署員 金浩晟

琿春哈德門警察署 署員 楊昌熙

琿春哈德門警察署 署員 朱在駿

間島局子街 吉順和

◇載寧◇

載寧邑內 西鮮電氣株式會社 長電話七二番

載信水利組合 長電話二三番

載寧邑內 安寧水利組合 理事 森林京太郎 長電話五五番

載寧邑內
株式會社 載寧殖産組合
株式會社 載寧村木商會
株式會社 載寧菊花釀造場
特許新案 空氣銃製造所 主 黃利善

載寧邑內 閔丙德

載寧西湖面事務所職員一同
北栗面事務所職員一同
南栗面事務所職員一同
下聖面事務所職員一同
清川面長 康昌烈
銀龍面長 梁在濂
三江面長 康奎夏

載寧私立明新學校職員一同
載寧私立僧新普通學校職員一同
載寧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三江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新院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下聖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載寧邑內 載寧藝妓組合

載寧邑內 李文電氣製綿所

[illegible]年末年始欠禮 載寧私立明新學校長 韓永鎬

載寧邑內 載寧警察署 署長 谷村杢治郎

載寧邑內 長壽醫院 醫師 鄭東燮 電話五九番

載寧邑內 風油、皮麻子油、水荏油、桐油、其他原料委托販賣 廣信製油所 主 印永洙

載寧邑內 載寧運輸倉庫株式會社 長電話二三番

載寧邑內 蘇戟自動車 載寧營業所 長電話一〇四番

載寧邑內 雜貨商 旅館業 理髪業 主 吳昌亨

載寧邑內 載寧タクシ 長電話七二番

載寧郡三江面靑龍浦 海陸物産委托販賣 円運送店 主 裴明周

載寧郡西湖面新換浦里 小淵毅

載寧郡西湖面新換浦里 穀物貿易 肥料販賣 主 裴東參

黃海道載寧郡西湖面 西江治水新換浦工場

載寧邑內
司法代書 盧允植
司法代書 金元三
司法代書 俞致祥
司法代書 鄭淳鳳
司法代書 金公殷

載寧邑內 日新組合 長電話六六番

載寧邑內 載寧濟衆病院 醫師 洪命吉

載寧邑內 載寧鄕約會

載寧邑內 大昌商會

載寧邑內 又昌旅館 主 朴學善

載寧邑內 綿紗、布木、各種絹類、メリヤス、雜貨都散賣 金知賢商店

載寧邑內 穀物貿易 委託販賣 吳國煥商店 長電五一番

載寧邑內 內外國種貿易販賣 文昌局 主 李鐘國

載寧邑內 柳屋旅館 長電一〇番

載寧邑內 綢緞布木 華盛興商店

載寧邑內 米穀委託業 白南協商店 長電五八番

載寧邑內 海林商會 主 朴炳坤

載寧邑內 米穀、雜穀、各種雜油製造販賣 李成柱商店

載寧邑內 穀物貿易 李重五商店 長電一〇六番

載寧邑內 中華料理 福生園

載寧邑內 和洋御料理 載寧食堂 長電四六番

載寧郡北栗面內宗里 同仁醫院 醫師 林元熙

載寧郡清川面 新串農民組合

載寧郡西湖面新換浦 金融組合 金[illegible]範 崔敬範

白石東拓駐在所 金福壽

載寧郡南西面方盛里 姜希兆

載寧郡載寧面抓山里 復明農監 金東瀅

載寧郡西湖面石山里 胡貞恒

載寧郡三江面靑龍 郭永敎

載寧邑內 金鎬熙

載寧邑內 西鮮商會

◇善山◇

善山面職員一同
龜尾面職員一同
海平面職員一同
高牙面職員一同
山東面職員一同
長川面職員一同
桃開面職員一同
玉城面職員一同
舞乙面職員一同

善山十五日會

善山砂防工事出張所 職員一同

龜尾警察官駐在所
高牙警察官駐在所
海平警察官駐在所
山東警察官駐在所
長川警察官駐在所
桃開警察官駐在所
玉城警察官駐在所
舞乙警察官駐在所

善山郡森林組合

善山郡農會

龜尾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海平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高牙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illegible]協同組合 善山支店

長川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龜尾酒造組合

龜尾驛前 米穀商 金圭默

高牙面新村洞 金鍾萬

長川 金東碩

龜尾驛前 ㈱運送店 金秉翊

龜尾 七星會

善一酒造組合

長川金融組合

龜尾驛前 洋服店主 尹彩雲

龜尾市 金華默

龜尾驛前 中駿渼

高牙面造場 金璓煥

高牙新村洞 泉源釀造場

高牙面新村洞 金鍾亨

海平面文良洞 金海龍

海平 小野田三郞

山東面桃中洞 魯佑榮

龜尾市 金聖培

龜尾驛前 金定東

桃開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善山金融組合長 金東泰

善山邑 李揆學

善山邑 金允培

長川救生病院 金敎煐

海平醸造場 氷見秀則

龜尾 石川宗平

龜尾面蓬谷洞 朴達夏

高牙面元湖洞 金宅敎

龜尾 權聖重

龜尾面元坪洞 徐丙熙

龜尾廣坪洞 文星釀造場

龜尾廣坪洞 李在和

善山海平市 崔元浩

善山高牙面外人洞 尹容植

◇滿浦◇

滿浦警察署職員一同

高山鎭
醫生 金禹根
穀物商 崔鼎鉉
布木商 劉淇奉
農民共生組合
東炫商店

高山面事務所
面長 金澤俊
書記 徐貞三 李校茂 金麟闢 金基溶 白樂善

時中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東西面
面長 田宗善
書記 金鍾協 吳奎泰 金興烈 田宗塤

乾中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江界郡外貴面 外貴購買組合

滿浦木工所 主 金奉五

滿浦市 氣山醫院 院長 金殷植 電話二九番

高山鎭 朴奎善

滿浦市 貿易商 韓時奎 金建恒 黃龍何

滿浦市 同益商店 主 金基洙 電話三〇番

滿浦市 綿布商 白南奎

滿浦市 綢緞布木 和洋雜貨商 白龍基

滿浦市 綢緞布木 和洋雜貨 信源商店 主 鄭信源

江界釀造株式會社 滿浦分工場

文玉面書記一同

滿浦市 廣信商店 盧[illegible] 電話一六番

滿浦市 金春鳳 電話二五番

時中面長 金紀潤

時中面書記一同

東西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滿浦市 穀物貿易 雜貨商 金鏞基

滿浦市 海陸物産委託販賣 丸松運送部 主 金洛瀧 電話七番

◇昌寧◇

昌寧邑內 合資會社 嶺南自動車部 河駿鎬

昌寧邑內 南昌印刷株式會社

昌寧邑內 昌寧商合同自動車株式會社 社長 金斗贊